

## 默齋 李文樞의 시에 대한 치유적 독법 시론\*

-『嘿休唱酬』를 중심으로

김 승 룡\*\*

- I. 문제제기 『默齋集』
- II. 『嘿休唱酬』의 경과와 수록시
- III. <嘿齋吟>嘿의 의미
- IV. <休叟吟>休의 의미
- V. 목재 시의 치유적 독법의 가능성

### 국문초록

이 글은 목재 이문건의 시세계를 살피기 위한 전초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목재가 지은 <嘿齋吟> <休叟吟> 두 수의 의미를 깊게 들여다보면 서, 그의 시가 가진 서정세계를 짐작해 보았다. 사실 목재의 시는 당대 문인들이 수창의 형식으로 주고받았으며, 이는 ‘嘿休唱酬’라는 제목으로 모아져 있다. 하나의 시적 서정에 16세기 문인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대단히 보기 드문 귀한 사례이다. 목재가 직접 친우들에게 화운시를 구하였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도 차운시가 도래했던 것을 보면, 이는 사대부 사이에 공유되는 서정세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글은 그곳까지 논의를 확장하지는 않는다. 오롯하게 목재의 시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laohu99@pusan.ac.kr

에 집중하며, 목재가 시를 통해 내면을 어떻게 성찰하고 自整해 나갔는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嘿齋’의 ‘嘿’과 ‘休叟’의 ‘休’는 개인적 아픔을 담아내고 있었다. 필자는 목휴사에서 목재가 자신의 상처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던지시 담아내되 시적 비유와 암유를 적절히 구사하며 짜임새 있게 솔직한 자신을 그려내었던 것이다.

◆ 주제어

---

목재, 이문건, 목휴창수, 휴수, 치유적 독법

## I. 문제제기\_『默齋集』

이 글은 默齋 李文樞의 시세계를 본격적으로 살피기 위한 前哨的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목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그의 『養兒錄』과 『默齋日記』에 대하여 이루어져 있다.<sup>1)</sup> 목재집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다소 의아한 점이 있다. 아마도 문집의 수습이 문중에서만 소통되어 정식 간행되지 않았고, 1944년에야 비로소 유인본으로 간행되었던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목재일기』나 「양아록」에 비해 16세기 사회상의 해석에 있어서 특징적인 면이 약하다는 점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목재집』을 일별하면서 가진 初見은 목재가 가진 서정 세계에 대한 이해와 같이 일기류나 잡록류의 글을 竝讀해야 온전한 목재상이 잡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그 단초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선 그가 회갑이 되는 즈음에 재호를 제시하고 자신의 공간과 인간됨에 대하여 규정을 짓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목재의 시를 찬찬히 들여다보려고 한다. 아울러 스스로 자신을 보는 것과 달리, 다른 사람이 그를 바라보는 관점을 읽기 위하여 그의 시에 차운했던 시들을 대략적이거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와 남의 교차적 이해 속에서 목재를 더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2)</sup> 그리고 그의 4권에 걸친 시 속에서 그의 고민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을 들어 그의 시적 특징의 한 국면을 확인하고자 한다.

고전 지식인에게 한문은 일기를 쓰는 수단이기도 하고 죽음을 아쉬워하는 도구이기도 하며, 내면을 응시하는 거울이기도 하고 세상을 우회적으로 반영하는 프리즘이기도 하다. 목재에게 시는 다양한 주제하에 지어

- 
- 1) 목재 이문건의 학문과 사상 및 문학에 대한 연구는 부록으로 첨가한 연구목록을 참조하길 바란다.
  - 2) 본고에서는 목재의 시에 대한 차운시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에 앞서 목재가 지은 시에 대한 정확한 독해와 그 안에 담긴 목재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선결과제였기 때문이다. 차운시 검토는 후고로 미뤄둔다.

지고 있었지만, 나는 내면을 응시하여 상처를 위로하거나 자아를 성찰하여 세상에 나를 停立해내는 역할을 한 점이 特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형규의 해제에 의하면, 『默齋集』은 1944년에 후손들에 의해 油印本으로 간행되었는데, 『목재일기』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詩文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권8, 2책(상·하책)으로 총 136장이다. 1책은 총 80장으로, 1944년(公歿後 378년, 甲申)에 작성한 서(序; 13세손 李弘淳), 目錄 및 권1~5로 구성되어 있다. 권1 嘿休唱酬는 <雨中詠齋號>를 필두로 親友詩가 부기되어 있고, 권2 詩文選輯一, 권3 詩文選輯二, 권4 詩文選輯三, 권5 詩文選輯四로 구성되어 있다. 2책은 총 56장으로 권6~8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6은 致祭 14편, 墓誌 4편, 疏章 13편 등으로 구성되고, 권7 養兒錄, 권8 圖書掛書撮要) 등으로 구성된다. 권말에 恩津 宋時烈이 지은 목재의 行狀 및 발문(14세손 李相衡)이 수록되어 있다.<sup>3)</sup>

『목재집』을 살펴보면 시는 문집의 1/2을 넘어서는 분량이다. 그런데 이 문집에 수렴된 시들은 대개 1554년(갑인) 이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창작 시기순으로 수습이 되어 있는 편이지만, 干支를 살펴보면 순서가 바뀌어 섞여 있기도 하다. 각 시마다 대부분 간지가 붙어있고 시를 짓게 된 경위가 안내되어 있었다. 마치 일기를 써 내려간 듯한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목재일기』와 같이 견주면서 논의할 수 있다면 더욱 실증적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글은 시의 일기적 성격을 잠시 논외로 두고, 시의 창작 특징과 문체적 수사에 초점을 맞추어 시 전반에 흐르는 고전 지식인으로서의 고뇌를 포착하고자 하였고, 시의 일기와의 竝讀은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이문건의 號인 ‘목재’의 유래를 확인해 주는 『목휴장수』의 시들은 그의 서정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여기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차후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목재일기』와 대조하여 작시의 정황을 찬찬히 정리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목재집』에 수록된 시들은 그의 말년

---

3) 이형규, 해제, 『국역 목재선생문집』, 성주문화원, 2024.

10여년간(13년간) 지어진 것들이다. 젊은 시절의 시는 사화를 입어 유배된 처지에서 전해지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논의는 그의 삶 말미의 서정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미리 언급해 둔다.<sup>4)</sup>

## II. 『嘿5)休唱酬』의 경과와 수록시

한 사람이 일평생 품고 살아온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서재의 이름(이하 ‘齋號’로 통칭)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한번 지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齋號는 移居할 때마다 취할 수 있으므로 그 사람의 인생 역정을 따라가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꾸며 무엇을 지향하며 살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거처에 걸었던 재

4) 이 글은 성주문화원이 주최한 「목재 이문건 진암 정교의 학문과 사상」(2024년 11월 7일) 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당시 필자는 목재 문중에게 이 문집에 수록된 시가 생애 후반의 시만 수록되어 있음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문집의 수습과정을 질의했었다. 그때 문중에서는 『목재집』이 시중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3천만원을 들여 2책 『목재집』을 구입했으며, 오늘 발표된 자료가 그것이라고 했다. 목재의 청년기, 장년기의 시문은 현재 전하지 않는 셈이다. 또한 발표회가 끝난 뒤, 『목휴창수』가 현재 지방문화재 162호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주문화원의 후의로 당시 지방문화재로 등록된 자료의 사본을 구해받았는데, 이는 목재에게 화운하였던 시 원문 유목을 모아서 製冊한 책자였다. 퇴계, 남명, 율곡 등의 필적을 접할 수 있는 귀한 유목집이다. 다만 추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목이 저자의 필목 원본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인 듯하다. 또한 필자가 제공받은 유목집에 수록된 것도 온전치 못하여 전체 유목을 살펴볼 수 없었음도 일러둔다. 차후 화운시의 원본 유목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默’齋인가 ‘嘿’齋인가에 대하여 본고의 입장을 정리하고 논의를 하려고 한다. 이문건이 목재라는 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목재음>, <휴수음>을 짓고 나서이다. 그리고 자신의 시와 친우들의 시를 모아 ‘嘿休唱酬’로 엮었던 바, 그가 처음 쓴 표기는 ‘嘿’이었다. 유목으로 확인되는 퇴계나 남명의 시에는 嘿으로 쓰고 있다. 물론 ‘默’으로 쓰는 사람도 있다. 글자의 뜻은 거의 동일하지만, ‘嘿’으로 쓴 이유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본고는 우선 문집과 이문건을 지칭할 경우에는 통칭인 ‘默齋’로 표기하고, 시를 다룰 때에는 ‘嘿齋’로 표기하고자 한다. 실제 이문건의 시 <목재음>도 한자표기는 ‘嘿齋吟’이었다.

호에 담긴 뜻을 파악하면 그 시절에 그 사람이 재호에 자신의 의지와 이상을 담아 늘 그것을 돌이켜 보며 생활의 좌표로 삼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재호를 짓고 기문을 작성하는 방식은 대개 세 가지이다.<sup>6)</sup> 자신이 직접 재호를 짓고 기문을 작성하는 경우, 재호는 자신이 짓되 기문은 지인에게 부탁하는 경우, 재호와 기문을 전부 지인에게 일임하는 경우이다. 특히 첫 번째 경우, 재호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고 기문을 통해 자신을 삶을 반성하며 인생의 진로를 설정하였다. 목재는 1554년 자신의 환갑일에 재호를 ‘嘿齋’로, 자호를 ‘休叟’라고 지었다. 고전 지식인에게 재호와 자호는 일상적인 일이기에 그닥 주목을 받기에는 충분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삼가 살펴보니, 선생은 일찍이 己卯士禍의 禍網에 걸려서 연좌되어 停擧 당하였고 다시 乙巳年의 간악한 무고를 당하여 성주로 내쫓겨서 달게 고초를 받았다. 그리고 嘿齋와 休叟로 自號하고 율시 두 수로 자신이 귀의할 뜻을 보였다. 당시의 친우들이 모두 그 시에 차운하여 수답하자, 이에 손수 큰책으로 엮어서 부치면서 책에 이름하기를 ‘嘿休唱酬’라고 했다. 대개 잡아 지키려는 마음의 법도와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삶의 규모가 어찌 후인들이 미칠 수 있겠는가? 尤菴이 선생의 행장을 짓고 대략 이르기를 ‘이 책은 세상에서 보배로 여겨야 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sup>7)</sup>

위에 의거하면, 목재가 재호와 자호를 두고 율시를 지었고, 그에 차운한 시들이 쇄도하였으며, 그것을 하나로 묶은 책, ‘嘿休唱酬’가 송시열의 언급처럼 爲世所寶할 만한 편목을 지녔다는 것이다. 목재의 시에 차운한 사람을 들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는 同時에 진행된 것은 아니고, 목재의 시에 한동안 차운해 보낸 시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목재집』을 엮

6) 강현규·신용호, 『한국인의 字·號 연구』, 계명문화사, 1990.

7) 『默齋集』卷1, “謹按先生 嘗罹己卯之禍網 坐被停擧 再遭乙巳之姦誣 見逐星邑 甘受佗■而以默齋休叟自號 吟成二律 以示歸趣 當時親友 皆和其韻而酬之 乃手輯大編而付之名其編曰默休唱酬 盖其操守之心法 裕後之規謨 豈後世之可及哉 尤菴贊先生之行狀 略曰 此編爲世所寶者 卽謂此也”

은 13대손 李弘淳의 일러두기에 의하면, “선생의 유고를 벌레와 쥐가 파먹던 나머지에서 겨우 수습하여 8권으로 나누되 嘿休를 평생의 지조로 삼아 沈潛하며 만년의 호사로 삼았기에 嘿休唱酬를 머리에 수록한다.”고 했다. 『목휴창수』에 수창한 사람을 들면 다음과 같다.

- 李文樅, <雨中詠齋號>
- 李滉, <客有問於溪翁 曰兌可塞乎 曰不可 蠱可已乎 曰不可 客曰有叟於此 嘿休焉 是誠何爲者耶 曰時然後言 塞兌云乎哉 應以無心 已蠱云乎哉 客曰一聲出口 非嘿也 一步出門 非休也 言而曰嘿 應而曰休 吾不信也 翁曰客且休矣 嘿然而記其說 以貽叟 叟以爲何如 右嘿齋休叟說 退溪病翁>(1557)<sup>8)</sup>
- 黃汝獻, <奉次來韻錄呈 清玩案下 冀垂一教>, <奉呈嘿休大尊案下><sup>9)</sup>
- 宋純, <奉次>
- 李元孫, <次韻>
- 宋希奎, <次韻>
- 尹文老, <次韻>
- 曹昱, <次嘿齋韻> <次休叟韻>
- 盧禎, <敬步高韻伏希一粲>
- 曹植, <奉和嘿休韻>
- 李希顔, <奉和嘿休韻> <仰賡默齋>
- 李燭, <仰次默齋韻>
- 權應挺, <次韻>
- 盧慶麟, <嘿休令公惠詩用來韻>
- 李橫, <次>
- 呂巖, <次>
- 金宇弘, <次>
- 洪繼玄, <次>

8) 『목휴창수』에는 퇴계의 차운시 다음에 <子發先生 拜問李丞旨寓舍>(1561)가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이 시에 대한 목재의 차운시가 <次退溪韻>라는 제명으로 부기되어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두 수는 목재와 휴수에 부쳐진 시는 아니다. 퇴계와의 교분을 드러내기 위해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9) 黃汝獻은 처음에 <奉次來韻錄呈 清玩案下 冀垂一教>라고 하여 분언하여 두 수로 차운했지만, 목휴를 나누어 말했지만 표현이 충분하지 않아 아쉬워하며 다시 <奉呈默休大尊案下>를 지었다.(自註: 分言嘿休而辭不達意恨), 모두 ‘목재’와 ‘휴수’를 노래한 시이다.

- 權應仁, <謹步高韻 錄呈左右 強和郢曲 寧免效顰之譏乎 無任靦顏 幸賜繩削>
- 柳應璧, <次嘿休二吟>
- 金振宗, <奉和>
- 李孝甲, <嘿齋吟> <休叟吟>
- 柳景深, <次嘿齋吟>
- 李珥, <伏次>
- 黃俊良, <奉和>
- 李景粹, <奉和>

『목휴창수』의 처음에는 목재의 <雨中詠齋號>가 수록되었고, 이에 대한 이항의 차운 및 증시가 수록된 뒤, 그에 대한 목재의 차운시를 두어서, 목재와 퇴계 사이의 수창을 돋우었다. 영남의 큰 학자였던 퇴계의 지우를 입음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표시였다. 이후로 목재의 시에 차운한 사람들의 시를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끝에는 “按詠齋詠休韻 止此而已 下則雜引他韻 以足其巨篇 故今不敢改正而并以本編爲正焉”라고 하여, 『목휴창수』와 다른 시를 구분하고 있다. 차운한 인물의 면면을 보면, 유력한 16세기 지식인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 집안이나 성주의 후배나 고을 원님이 되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즉 당시 성주가 16세기 지식인사회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즉 차후 挽詩를 비롯해 贈詩 등과 연동하여 고전 지식인의 창작공간으로서 성주가 새롭게 연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목재의 시를 찬찬히 읽어보고자 한다. 최대한 목재의 생각을 성실하게 돋우는 각도에서 다루도록 한다. 그리하여 ‘嘿’ ‘休’로 요약되는 과정에 놓인 목재의 심정을 추적해 나가도록 한다.

### Ⅲ. <嘿齋吟>\_嘿의 의미

“나는 살면서 평소 나약함을 부끄러워하여 治事에 게으름을 직언하였다가 그  
에 유배되어 내쳐졌는데, 더욱 마음으로 꺼리는 바가 있어서 오직 休嘿을 생각하



며 남은 삶을 지키려고 했다. 이를 노래하여 읊시 두 수를 짓고 그로써 그 뜻을 보이며 간간이 친구들의 화운을 찾아서 면목을 갖추려고 생각하였다.”<sup>10)</sup>

이는 목재의 언술이다. 짧지만 그의 삶이 잘 요약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癡怯懦’라고 하였으니, 목재의 성품은 불의나 부정을 보았을 때 나약한 소시민적 태도에 안주하지 않고, 정직하고 곧바르게 행실을 가다듬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言怠事, 즉 치사에 나태함을 직언하였으니, 그의 반듯함과 과감함도 엿볼 수 있다. 이는 그가 1519년 기묘사화에서 조광조가 화를 입었을 때, 형 李忠健과 같이 喪禮를 다하다가 끝내 21년 옥사에 연루되어 형은 청파역에 정배되어 사사되었고, 본인은 낙안에 유배되었던 사실, 그리고 을사사화로 인하여 성주에 付處된 사실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짐작하게 해준다. 아울러 1528년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 承文院, 承政院注書, 侍講院說書, 侍講院司書를 지냈었고, 1537년(중종32)에는 4월, 司諫院正言으로 禧陵의 일을 임금에게 고했으며, 이후 兵曹佐郎, 吏曹佐郎, 司畜署司畜, 吏郎, 忠淸都事 등을 역임했고, 1544년에 중종이 승하하자 弘文館應敎로 殯殿都監執禮官을 맡아 銘旌, 謚冊, 神主를 기록했고, 1545년에 通政, 承政院同副承旨 등을 지냈던 이력들, 언관의 벼슬을 지냈던 자취와도 이어진다.<sup>11)</sup>

목재는 유배된 처지를 어떻게 脫身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앞으로의 ‘庇餘生’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尤有所憚’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그의 성주 시절, 그곳을 찾아온 목사나 관관들 가운데 재지사족(목재를 포함하여)과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결국 탄핵을 받기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다. 재지사족과 지방관과의 관계를 새삼 엿보게 만드는 사례인데, 이것이 성주에서 일어났었다.<sup>12)</sup> 목재는 성주에서 자리만 차지하는

10) 『默齋集』 卷1, 嘿休唱酬, <雨中詠齋號> 小序, “生素癡怯懦 言怠事 坐謫襄遲 尤有所憚 只思休嘿 以庇餘生 吟成二律 用示其志 間求親友之和 擬作面目云”

11) 『默齋集』 卷8, 附錄, 宋時烈, 「承政院左副承旨默齋李公行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지방의 정상적인 治事를 위하여 노력했던 분별있는 지식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저들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嘿休를 제기한다는 것은 다소 뜬금없다. 명확한 이유를 대기는 어렵지만 그의 삶을 재편하는 화두로서 제기된 것이고, 나아가 그간의 삶에 대한 태도를 더욱 숙고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 이제 그의 시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묵휴시는 그의 甲子가 일주한 예순의 나이에 지어졌다. 시제는 <雨中詠齋號>인데 ‘嘿齋’와 ‘休叟’로 나누어 두 수를 지었다. 먼저 <嘿齋吟>을 보자.

觸機生禍語難諧	機禍를 건드려 재앙을 낳았으니 말은 화해롭지 못하고
一踏無何事盡乖	한 번 발을 헛디더 어찌지 못하니 일은 모두 어그러졌네
物自橫時容便好	사물이 멋대로 횡행할 때 容身은 곧 좋거니와
辱從來處忍還佳	모욕이 따라오는 곳에 인내가 되레 아름다워라.
眸昏不用妍媸別	눈은 어두워 그로써 美醜를 구별하지 못하니
性懶休論得喪懷	성품도 게으를 손, 得失을 마음쓰라 논하지 말라.
城底數椽安分臥	성 아래 서까래 몇몇 엮고 安分하여 누우며
箇中情味 <sup>12)</sup> 噤如齋	그 안에서의 마음일랑 齋戒하듯 입 닫노라.

이 시의 시적구도는 제법 안정적이다. 읊시 8구 전체가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시적 논리 또한 단계별로 차근차근하게 진행되며 끝내 자신이 왜 ‘噤如齋’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井然하게 펼치고 있다. 제1구와 제2구는 불편하게 된 자신의 삶을 짧게 요약하고 있다. 말(語)도 일(事)도 모두 원활하지 않았다. ‘語難諧’와 ‘事盡乖’가 대구를 이루면서 시인의 상황이 막다른 곳으로 내몰려 위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12) 『明宗實錄』 卷16, 明宗 9년 1월 3일, “○甲辰 諫院啓曰 星州牧使羅士愼 多聚同鄉人及族屬 貽弊多端 又與判官 分工師辦其私用 其鄙陋細瑣 舉此可知 判官崔汝舟 凡官廳貢賦雜物監納之時 不至於五六倍則不納 油蜜則穿竅於升斗之底 漏之滿意 然後許量焉 一邑之民 怨苦盈路 性又倨傲 與士愼不相睦 日以相圖傾陷爲事 請竝罷職 答曰 如啓”

13) 李元孫, 『無何翁集』, <次默齋李子發星山唱酬錄韻>. 차운시의 부록으로 수록된 묵재의 원운에는 ‘情懷’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함련은 뜻밖의 반전을 보여준다. ‘時’와 ‘處’를 대조시키면서 시간과 공간을 보이며 하나의 세계를 구성해 내는데, 특별한 시공간은 아니다. 늘 마주하는 시간이요 공간이다. 그런데 그 시각은 사물이 自橫하는 때이다. 物은 나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 나를 둘러싼 세상이 나와는 무관하게 돌아가면서 멋대로 횡행한다. 위태로운 때다. 게다가 내가 있는 곳은 모옥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모옥은 나와는 무관하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가해져 자존을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자횡하는 物이든, 종래하는 屢이든 모두 나의 자존을 부수고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들인 것이다. 그런데 시인은 그 시간이 容身하기 곧 좋아지는 순간이고, 그 공간이 인내가 다시 아름다워지는 곳이라고 했다. ‘便’과 ‘還’ 두자를 활용하여 逆說을 끌어내고 있다. 가장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에 그의 처신과 인내심이 발현되는 법임을 생각하면, 시인의 논리가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그러나 시상을 이렇게 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율시에서 제 3, 4구는 시적 맥락에서 꽃에 해당한다. 사실 이 제3, 4구의 이해 여부가 이 시의 의미를 간취해내는 열쇠인 것이다. ‘好’와 ‘佳’도 의미가 좋다. ‘好’는 惡와 상대하며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뜻한다. 호오는 자연스런 감정에 근원하는 바, 호오가 안정된다는 것은 흡사 평정심, 즉 아파테이아를 뜻한다. 세상이 나를 拒逆하는 순간에 나의 마음이 好를 유지하는 것, 이는 평정심을 되찾는 것을 말한다. ‘佳’는 嘉의 형용사적인 표현으로서 아름다운 상태를 뜻한다. 인내는 의지적인 행위이다. 다소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을 강제로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행위가 되고 있다. 강제적 억지적 성격을 미적인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뜻밖에 모옥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구태여 목재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릴 필요는 없다. 우선 시의 논리에만 충실해보도록 한다.

眸昏不用妍媸別  
性懶休論得喪懷

눈은 어두워 그로써 美醜를 구별하지 못하고  
성품도 게으른 손, 得失을 마음쓰라 논하지 말지니.

경련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자. 흐릿해진 눈동자, 게을러진 성품. 사실 이는 시인이 타고난 눈과 성품은 아니었다. 함련의 ‘物’과 ‘辱’으로 인하여 빚어진 결과였다. 분명 제3, 4구에서 容身은 좋아지고, 인내도 아름다워진다고 했지만, 이들을 겪고 난 뒤의 모습은 끝내 이처럼 보잘것없는 몰골과 지친 마음이 된 것이다. 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창구이고, 性은 내 안에 쌓아 길렀던 인격이다. 나는 이 지점에서 목재의 인간됨을 읽게 된다. 鐵人처럼 강인함이나 도사처럼 초탈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일 뿐이다. 제5구처럼, ‘妍媸’, 즉 미추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것은 眸昏때문으로, 그렇게 된 상황을 표현하였다면, 제6구는 깊이가 남다른 구절이 된다. 제7字인 ‘懷’는 동사로 해석된다. 품다, 생각하다, 마음자리에 담아두다 등으로 옮길 수 있다. ‘得喪’, 즉 得失을 마음에 담아둔다는 뜻이다. 내가 만난 상처나 영예를 마음자리에 꼭 눌러 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니! 생각해 보면 그럴듯한 위로일 듯하다.

순간, 그것이 ‘性懶’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게을러진 성품, 즉 세상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해득실을 살필 수 있는 성품과는 떨어진 상태, 그것이 ‘懶’이다. 하릴없이 늘어진, 부정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순간순간 닥쳐오는 세상사에 대하여 초극하고 대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특별한 성품인 것이다. 이렇게 읽고 보니, 앞의 ‘昏’도 어두침침하거나 분별없는 눈이 아니라, 세상 사물의 자극에 예민하게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제1, 2구의 어긋난 상황, 제3, 4구의 생각의 반전, 그리고 나서 만난 ‘眸昏’과 ‘性懶’는 오히려 세상의 ‘妍媸’나 ‘得喪’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질인 것이다.

城底數椽安分臥  
箇中情味噤如齋

성 아래 서까래 몇몇 엮고 安分하여 누우며  
그 안에서의 마음일랑 齋戒하듯 입 닫노라.

이제 시인의 결론을 들을 때가 되었다. 그가 살고 있는 공간은 서까래 몇 개 정도 얹어놓은 작은 집이다. ‘城底’가 ‘城中(城内)’이 아님을 기억하도록 하자. 유배 살면서 도성 내에 뜨르르하게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7구의 ‘安分臥’는 작은 거처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의 태도를 뜻한다. 제8구에 이르면, 목재가 말하고자 한 ‘嘿’의 의미가 제시된다. 흔히 침묵하는 집, 말없이 지내는 자의 집 정도로 해석되곤 한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보면 ‘噤如齋’가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噤’이 ‘如齋’하다고 읽어야 한다. ‘齋’는 집의 뜻이 아니라 齋戒하다는 뜻인 것이다. 시인은 중의적으로 ‘嘿齋’를 ‘噤如齋’로 풀었고, 자신이 살아갈 방법에 대하여 슬쩍 제시해 놓았다. 이미 집의 의미는 ‘安分臥’에 충분하기에, 대구를 이루는 제8구에서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실 ‘嘿’과 ‘噤’은 의미가 약간 다르다.嘿은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고 소리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噤은 입을 닫고 소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嘿은 주동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噤은 외부의 힘에 의해 감히 말하지 않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시인은 ‘嘿齋’라고 쓰고, 자신은 지금 재계하듯이 조심스럽게 입을 닫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을 던지시 담아둔 것이다. 앞서 이 시는 8구 전체가 대구를 이루면서 시적 짜임새가 남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情味’를 ‘情懷’(이원손, 『무하옹집』의 원운 표기)로 표현하든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味’로 쓰는 것이 맞을 듯하다. 평측을 살피더라도, ‘椽’은 측성, ‘味’는 평성, ‘懷’는 측성이니, 평측대구를 굳이 맞춘다면 味が 더 적절하다. 뜻도 味が 본능적이고 자연스럽다는 뜻이 강하다. 이제 시인은 이곳에 거처하면서 편안하며, 그로부터 겪은 마음을 재계하듯 말하지 않겠노라고 하였다. 이처럼 제1구의 語難諧와 제8구의 噤如齋는 鈎勒하듯 엮어매면서 시상의 開闔을 이뤄 호응하면서 의미를 일관되게 이끌고 있다.

#### IV. <休叟吟>\_休의 의미

이제 <휴수음>을 살펴보도록 하자. ‘목재’든 ‘휴수’는 모두 이문건의 자호이지만, 하나는 공간이 성격이 강하고 하나는 삶의 태도와 비교적 가깝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嘿齋’를 ‘噤如齋’로 시 속에서 던지시 표현하고 있듯이, 공간이든 그렇지 않은 모두 삶의 방식과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다.

迂疎活計未曾謀  
束手無爲到白頭  
古趣欲從閒裡得  
清歡擬<sup>14)</sup>向靜中求  
一身但逸三誰省  
萬事都捐百不憂  
拙叟生涯斯亦足  
聖恩寬處占長休

살아갈 계획에 迂闊하여 한번도 도모한 적 없더니  
두 손 묶여 무엇 하나 못한 채 흰머리만 되었네.  
고아한 정취를 좇고자 한가한 가운데서 얻었고  
맑은 기쁨을 마주하려 고요함 속에서 찾았지.  
몸 하나 편안하면 그뿐이요, 뉘라서 세 번이나 살피며  
모든 일을 죄다 버렸으니, 백 가지 걱정하지 않노라.  
졸박한 노인의 삶, 이만하면 또한 넉넉하니  
성인이 너그러운 곳에 영원한 안식을 정했노라.

제2구의 “束手無爲”가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束手’라고 했으니, 무엇 하나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움쭉달쭉도 못하는 처지, 그러나 눈과 귀는 살아있고 세상물 정을 모르지 않음에랴. 그러다 어느새 허연 머리가 되어버렸다. 돌이켜 보면 그는 그동안 活計에 서툴렀고 제대로 도모한 적도 없었다. ‘活計’는 일반의 생계를 포함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세상의 인심을 알아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과 행위로 사랑을 받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목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오지 않았던 것을 뜻한다. 그렇게 살다가 만난 속수무책의 처지, 이는 앞서 <목재음>에 보았던 ‘事盡乖’와 동일하다.

14) 李元孫, 『無何翁集』, <次默齋李子發星山唱酬錄韻>. 차운시의 부록으로 수록된 목재 원운에는 ‘宜’라고 되어 있다.

古趣欲從閒裡得  
清歡擬向靜中求

고아한 정취를 좇고자 한가한 가운데서 얻었고  
맑은 기쁨을 마주하려 고요함 속에서 찾았지.

마찬가지로 제3, 4구에 작자의 의중이 담겨있다. ‘古趣’와 ‘清歡’은 속수무위의 상황에서도 추구하였던 시인의 지향점이다. ‘古’는 언제나 불과 대조되면서 가치가 높은 것을 뜻한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제4구의 ‘清’도 언제나濁과 견주어지면서 질적으로 남다른 것을 뜻한다. 역시 것처럼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진 않다. 흔히 古趣와 清歡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시인은 ‘閒’과 ‘靜’을 제시한다. 이 ‘閒’과 ‘靜’은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니다. 바로 속수무위가 안겨준 상황이다. 앞의 시에서도 의미의 반전이 나왔듯이 이 시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一身但逸三誰省  
萬事都捐百不憂

몸 하나 편안하면 그뿐이요, 뉘라서 세 번이나 살피며  
모든 일을 죄다 버렸으니, 백 가지 걱정하지 않노라.

제5, 6구는 ‘一’과 ‘萬’, ‘身’과 ‘事’, ‘但’과 ‘都’, ‘逸’과 ‘捐’, ‘三誰省’과 ‘百不憂’가 거의 대구를 이루고 있다. 대구를 이루면서도 ‘逸’ ‘捐’에 방점을 주어서 앞서 제3, 4구에서 이뤄놓은 閒과 靜의 반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즉 제2구의 “束手無爲到白頭”가 이뤄놓은 뜻밖의 선물인 셈이다. 그 내면에는 약간의 허탈도 들어있다. 이른바 강제적 박탈로 인한 처지에 순명하고 적응하는 가운데 뜻한 바와 멀어지는 자신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但逸”의 ‘但’은 그런 마음을 보여준다. 이른바 좌천된 지 어느새 거의 10여 년에 가까운 상황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바로 一身의 편안함이었다.

그런데 ‘逸’은 安과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안정된 편안함과 다르다. 逸은 원래 잃다, 떠나다, 고달픈 경지에서 벗어나다, 속박에서 탈출하다는 뜻에서 시작하여 고생을 벗어나 自由自在로운 상황,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모습이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면 탈속의 흥취까지 갖

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束手 운운하던 것과 견줘 읽으면 목재가 가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애써 증자의 一日三省과 같은 노력을 통해 나를 성찰할 것까지도 필요 없는 일이다. 게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가. ‘捐’도 의미가 있는 글자이다. 이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이 진귀하게 여기던 것, 좋아하던 것을 버리는 것이다. 棄처럼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제3, 4구에서 ‘閒’, ‘靜’ 속에서 ‘古趣’, ‘清歡’을 찾아내려는 것에 비하면 제5, 6구는 더 솔직하고 인간적이다.

拙叟生涯斯亦足

졸박한 노인의 삶, 이만하면 또한 넉넉하니

聖恩寬處占長休

성인이 너그러운 곳에 영원한 안식을 정했노라.

제7구는 흡사 杜甫의 <江村>을 떠올리게 만든다. 강촌에 사는 삶이 事事幽라고 했던 그는 제비도 물새도 자유롭고 아내도 아이도 나를 위해 노력해 주는 그곳에서 가끔 허약한 몸을 달래주는 약물 이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하는 자족적 시를 쓴 바 있다. ‘拙叟’, 즉 시인은 인간의 삶이란 것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자문한다. ‘亦’자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나마, 그래도, 그럭저럭의 뜻으로, 최고는 아니라도 지금의 나에게 최적의 삶을 보여주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제8구의 ‘聖恩寬處’는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성주를 가리킨다. 문제는 말미의 ‘占長休’인데, ‘長休’는 긴 휴식, 영원한 안식, 곧 삶을 마감하는 것을 뜻한다. 시인은 休의 의미에 삶을 끝내는 동안까지 머물 곳으로 이곳을 선택했음을 말하고 싶었던 듯하다. 休의 상대어는 勞이다. 앞서 제5구의 ‘逸’을 주목한 바 있는데, 逸도 또한 勞를 벗어나는 뜻을 갖기도 한다. 목재의 시어들은 특정한 의미를 내보이기 위해 하나씩 꿰어지는 셈이다. 이를 통해 보면 목재는 ‘休’에 세상의 피로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안식(終命)을 꿈꾸는 마음을 담아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休를 누리는 사람을 ‘拙叟’라고 하여, 재주 없고 변화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의 ‘休叟’는 영원한 안식을 도모하는 재주 없는 사람이란 뜻인 셈이다.



## V. 목재 시의 치유적 독법의 가능성

목재의 시 두 수는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수창이 집단적으로 이뤄진 데서 그 물결의 도도함을 확인하게 된다. 목재 자신이 친우들에게 화운시를 구하였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도 차운시가 도래했던 것을 보면, 당시 星州를 중심으로 한 16세기 사대부 사이에 목재의 시 두 편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흔히 동지적 연대나 재지사족으로서의 동질감이나 혈연/지연/학연 등의 因緣에 의한 동족감이나 하는 것을 넘어서는 지점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앞서 언급했지만, 16세기 星州를 중심으로 한 사족 사회의 성격을 구명하는 가운데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글은 그곳까지 논의를 확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목재의 시에 집중하며 목재가 시를 통해 내면을 어떻게 성찰하고 自整해나갔는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재”의 ‘嘿’과 “휴수”의 ‘休’는 개인적 아픔을 담아내고 있었다. 우리는 목휴시에서 목재가 자신의 상처를 위로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던지시 담아내되 시적 비유와 암유를 적절히 구사하며 짜임새있게, 그러면서도 전고를 현학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시는 시인의 내면 그 자체로서 우리가 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궁극의 모습은 시인의 내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 내면은 메시지일 수도 있고, 하나의 화면일 수도 있으며, 간혹 슬로건 없는 아우성일 때도 있다. 그런데 시는 직관적으로 내면을 보여주진 않는다. 그래서 정감을 거쳐 시를 읽어낼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을 뿐이다. 옛 분이 언급했듯이 시인은 不平한 상황에서 鳴言한다. 마음이 평정을 이루지 못한 순간 그 상황을 ‘불평’으로 언명한 것인데, 이를 ‘상처’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상처를 다시 平靜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이뤄낸 과정을 ‘내적 自整’이라고 할 때, 그 내적 자정이 이뤄져 끌어낸 효험을 ‘내적 치유’라고 부를 수 있을 듯하다.<sup>15)</sup>

목재의 시에서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목재집』에 수록된 시들

이 간지가 확인되는 것으로<sup>16)</sup> 갑인년(1554) 위를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보면, 『목재집』의 시는 대부분 60세 이후의 작품일 가능성이 짙다. 즉 목휴시로 시작된 후반 삶과 관련이 짙을 것으로 짐작된다. 차후 『목재일기』와 견주면서 차근차근 살핀다면 더 실제감이 있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후고를 기약하고 여기서는 우선 세 편의 시를 이해해보도록 한다. 이들 사이에 특별히 목재가 논리적 연결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 그가 가졌을 고심을 되짚어가기 위해 필자가 임의로 순서잡아 논의하였다.

<바쁘게 살면서> 제2수

今日倏已過	오늘은 훌쩍 어느새 지나갔거니
明日又如許	내일은 또 어찌할까나
人生天地間	사람이 천지간에 태어나
處如寄逆旅	사는게 깃든 나그네꼴이라.
奈何感百憂	어찌하여 온갖 근심을 느끼며
悄悄自煎煮	애타게 자신을 볶는가
宜緬思古人	정녕 멀리 고인을 그리며
并刀須剪去	모름지기 칼로 끊어내어야 하리 <sup>17)</sup>

이 시는 모두 세 수로 이뤄져 있다. 제1수의 서두가 ‘愴愴’으로 시작하며, 바쁘게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모습을 제재로 삼았다. 총총은 時勢

15) 줄고, 「추모시, 치유로 읽히다\_김택영과 황현」, 『고전치유학을 위하여』, 미다스북스, 2024. ‘내적 자정’과 ‘내적 치유’는 동일한 순간에 대한 과정과 효험의 성격을 갖는다.

16) 『목재집』의 편자는 목재의 원고 가운데 干支가 제시되지 않은 작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심한 듯하다. 그래서 간지가 불명확한 시는 한데 모아놓기도 했다. 그런데 필자가 확인해보니, 간지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 가운데 <蹢躅>, <毀譽>, <田家> 등은 『梅月堂詩集』(권1)에 나오는 작품들이었다. 『목재집』에 잘못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차후 간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작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7) 『默齋集』 卷3, <愴愴行 三首>

를 좇아 다니던 자신의 모습을 가리킨다. 그로 인하여 갖게 된 근심들, 제3, 4구에 보듯이 ‘逆旅’ 같은 삶이었다고 탄식한다. 나그네로 사는 삶 자체가 문제는 아니리라. 무엇보다 그로 인해 갖게 되는 ‘百憂’가 문제다. 제6구의 “悄悄自煎煮”를 보면, 결국 문제는 자신이었다. 초조하게 나 자신을 에타게 만들었던 것은 결국 나였던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제 7, 8구에서 과감하게 칼로 끊어내라고 한다. 흡사 불가에서 마음의 번뇌를 칼로 끊어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시제 아래에 “衰世不遇也” 자주가 붙어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 내가 가진 뜻을 펼칠 수 없는 것을 슬퍼한 것이다. 이 시의 치유 방법은 고인을 그리며 시름을 끊어내는 것이다.

# <나를 신척하다>

幾年衡宇對青燈	몇 년을 오두막에서 푸른 등불 마주하였던가
獨伴塵編枕曲肱	홀로 해묵은 책을 짝하여 팔을 베고 누웠네
文藻豈期追李杜	어찌해 문장은 이백과 두보를 뒤쫓겠다 기약했던가
躬行安敢仰顏曾	어이 감히 공행도 안자와 증자를 양모하였더뇨
於先欲孝今無及	선대에 효도하려해도 이제 미치지 못하거니
于國思忠奈未能	나라에 충성을 생각하나 할 수 없는 걸 어찌할꼬
只恐貽羞身更辱	오직 부끄러운 몸에 다시 모욕 줄까 두려우니
兢兢長若涉春冰	전전긍긍 영원히 봄날 살얼음을 밟듯하리라 <sup>18)</sup>

자신을 신척하면서 다잡는 시이다. 편제를 존중하면, 대략 1565년경의 작품이다. 문제적인 것은 제3~6구이다. 함련과 경련은 자신에게 되물으며 따지고 있다. 첫째 문장을 왜 이백과 두고를 굳이 기약했던가, 둘째 어이해 행실은 안회와 증삼을 닮으려 했던가, 셋째,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했지만 글렀고, 넷째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지만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는가. 하나하나 준엄하게 묻고 있다. 사족이라면 흔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듯하다, 문장과 행실, 충성과 효도 등, 이런 가치들에 대

18) 『默齋集』 卷4, <自勅吟>

하여 한번 더 자신에게 확인하는 과정은 다소 과격하긴 해도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효과는 있을 듯하다.

그런데 이 물음은 삶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닐 듯하다. 제7구를 보면, 자신을 ‘羞身’이라고 했고, 위의 질문에 나오는 것들을 기약하는 것이 ‘更辱’을 더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涉春水’하듯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한다. 그리고 보면 제1, 2구는 성주로 온 뒤의 생활을 요약한 것이다. 청등을 마주하며 ‘塵編’을 읽었던 것이다. 그런데 ‘幾年’이 흐른 뒤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방향을 새로 정하고 있는 셈이다. 시 속에 보이는 자기 위로는 파스하진 않지만 실존의 자존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 <늙은이의 유배살이>

一竄南州十九秋  
孤心日夜省讐尤  
水風聲咽喧雙耳  
昏黑花搖眩兩眸  
身倦只須藏伏枕  
力疲難得出騎牛  
鴻恩許續如絲喘  
安分唯宜效四休

한 번 남쪽으로 귀양온 지 열아홉 해라  
외로운 마음은 밤낮으로 허물을 성찰했네  
바람이며 물소리 목메여 두 귓가에 시끄럽고  
黑花 침침히 흔들려 두 눈을 어지럽히누나  
몸은 늘어져 오직 침상에 엎드리고만 싶고  
힘도 지쳐서 소를 타고 나갈 수도 없어라  
큰 은혜로 실낱같은 목숨 이어가게 해주면  
안분하며 오직 四休를 본받고파라. 19)

이 시는 1563년 5월 2일에 지었다. 성주로 내려온 지 거의 스무 해가 되었다. 그리고 목재는 그로부터 4년 뒤 삶을 마감하였으니, 이 시에 보이는 목재의 모습은 마치 삶을 마감하기를 목전에 둔 사람과도 같이 보인다. 시인은 늘 자신을 성찰했던 듯하다. 지식인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하염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조금이라도 동티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孤心’이라고 했으니 누구 하나 자신을 이해해줄 이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를 돌아보니 많이 지쳐있다. 앞의 <自勸吟>은 자신에게 되묻

19) 『默齋集』 卷4, <老謫吟>

는 질문을 함련과 경련에 갈무리했다면, 이 시는 이곳에 현재의 자기 모습을 있는대로 그려넣었다. 귓가에 들리는 바람소리 물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지고 눈도 침침하여 사물 분간도 어렵다. 한창 게을러진 몸은 그저 누워있어야만 하고 기력도 떨어져 소를 타고 나가기도 버겁다. 거의 일흔에 가까운 나이에 이해가 될 법하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목재의 성실함을 확인하게 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음은 결국 그로부터 한 발 더 나갈 原力을 찾을 수 있겠기 때문이다. 목재가 선택한 삶의 방식, 즉 치유는 ‘四休’였다.

四休는 송나라 孫昉의 자호인데, 거칠고 습습한 밥도 배부르면 쉬고, 해진 옷이라도 추위만 가리면 쉬고, 평안하고 원만하면 쉬고, 탐욕도 질투도 하지 않으면서 늙으면 쉬다(麤茶淡飯飽卽休 補破遮寒暖卽休 三平二滿過卽休 不貪不妬老卽休-黃庭堅, 四休居士詩序)는 데서 나온 말이다. 우리는 앞서 <휴수음>을 살펴본 바 있다. 목재가 휴수를 두고 노래한 것을 보면, 그의 버겁기 짝이 없는 삶을 영위할 치유 방법으로 休는 여전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목재의 시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특히 유배라는 강제 추방의 방식으로 지역에 머물게 된 상황은 그를 견딜 수 없는 자존의 하락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목재는 자신이 머물던 성주의 재지사족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내었다. 아울러 말년까지 그가 견지했던 삶의 태도는 ‘嘿’과 ‘休’로 대변되는 서정세계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끊임없는 외부의 자극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6세기 사대부 사회의 집단적 공감을 끌어냈다. 비록 이 서정세계가 그의 노년을 다룬다는 시기적 한계는 있지만 차후 그의 시를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는 마련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나아가 그의 시는 일개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서 당대 재지사족들의 삶을 치유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 지점은 차후 과제로 남겨둔다.

※ 이 논문은 2024년 11월 2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2월 0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嘿齋先生文集』, 家藏本 \*본문에서는 『목재집』으로 부름.

『嘿休唱酬』, 家藏本 \*현재 지방문화재162호. 遺墨集.

李元孫, 『無何翁集』

강현규 · 신용호, 『한국인의 字 · 號 연구』, 계명문화사, 1990.

강희대 역, 『국역 목재선생문집』, 성주문화원, 2024.

김승룡, 『고전치유학을 위하여』, 미다스북스, 2024.

Abstract

## Therapeutic reading of Mukjae Lee Mungun's poetry\*

-Focusing on Mukhyuchangsu

Kim, Seung-ryong\*\*

This article is a preliminary study to examine the poetic world of Mukjae Lee Mun-geon. For this purpose, I looked deeply into the meaning of the two poems <嘿齋吟> and <休叟吟> written by Mukjae, and guessed the lyrical world of his poetry. In fact, Mukjae's poems were exchanged among writers of the time in the form of chants, and these are collected under the title '嘿休唱酬'. It is an extremely rare and precious example of 16th-century writers collectively participating in a single poetic lyricism. It is said that Mukjae personally asked for poetry from his friends, but the fact that poetry in response arrived over time suggests that there was a lyrical world shared among the nobles. This article does not extend the discussion there. Focusing solely on Mukjae's poetry, I would like to talk about how Mukjae reflected on his inner self and repaired himself through poetry. '嘿' in '嘿齋' and '休' in '休叟' contained personal pain. In this poem, I saw Mukjae comforting his own wounds. He very carefully hinted at his feelings, but also used poetic metaphors and allusions appropriately to portray himself in a structured and honest way.

**keywords :**

Mukjae, Lee Mun-geon, Mukhyuchangsu, Hyusu, healing reading metho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Korea Literature In chinese charac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 默齋 李文樞 有關 論著目錄\*

### I. 학위논문

1. 김인규, 「16世紀 慶北 星州地域의 匠인 研究 : 李文建의 '默齋日記'를 中心으로」,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02.
2. 장성덕, 「默齋 李文樞의 流配時期 交遊樣相」, 경상대학교 석사논문, 2008.
3. 이해정, 「16세기 노비의 삶과 의식세계 :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12.
4. 조은숙, 「『養兒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4.
5. 강수연, 「이문건의 아동교육관과 그 의의 : 『養兒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5.
6. 문혜경, 「이문건 『養兒錄』에 나타난 隔代教育의 교육적 의미」, 제주대학교 박사논문, 2018.
7. 조은숙, 「『默齋日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9.
8. 민정희, 「16世紀 星州地域 兩班家の 巫俗信仰 研究 : 『默齋日記』를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9.
9. 박찬희, 「16세기 兩班 남성家長의 유교적 삶과 그 이면 : 『默齋日記』와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20.
10. 김연주, 「조선중기 사대부가의 육류 소비의 특성 : 『默齋日記』와 『尾錄』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20.
11. 고나현, 「『양아록』의 격대교육사상을 통한 유아교육 및 부모교육의 의미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22.

---

\* 이 목록은 이문건에 대한 연구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제시한다. 『역주 목재일기』에 수록된 참고문헌과 보완하여 참조하기를 바란다.

12. 신영목, 「조선 중기 사대부의 명리와 풍수 사상 수용양상 연구 : 『미암일기』와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박사논문, 2023.
13. 박재홍, 「儒醫의 巫俗治病 受容樣相에 關한 研究 : 李文樾의 『默齋日記』를 中心으로」, 공주대학교 박사논문, 2024.

## II. 학술지 논문

1. 李相弼, 「『默齋集』解題」, 『남명학연구』 7,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7.
2. 이복규, 「목재 이문건의 『默齋日記』에 대하여」, 『국어교육』 9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3. 이복규, 「조선전기 사대부가의 무속 점복 독경 - 이문건의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 한국민속학회, 1998. (한국민속학회 학술발표대회 요지)
4. 안승준, 「16세기 이문건가의 노비사환과 신공수취 :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16, 한국고문서학회, 1999.
5. 김경숙,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제사설행과 그 성격 : 이문건의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26, 일지사, 2000.
6. 金素銀, 「李文樾家の 경제 운영과 지출 : 槐山入郷을 관련하여」, 『고문서연구』 21, 한국고문서학회, 2002.
7. 박미혜, 「조선 중기 이문건가의 遷葬禮 준비」, 『사회와 역사』 68, 한국사회사학회, 2005.
8. 우정임, 「『默齋日記』에 나타난 明宗代지방의 書籍流通 실태」, 『지역과 역사』 17, 부경역사연구소, 2005.
9. 박미혜, 「조선 중기 이문건가의 천장례 준비: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8, 한국사회사학회 2005.
10. 박미혜, 「조선중기 천장례에서의 유교적 恭順- 이문건의 『목재일기』

- 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0, 한국사회사학회, 2006.
11. 이정수, 「『默齋日記』를 통해 본 지방 匠人들의 삶」, 『지역과 역사』 18, 부경역사연구소, 2006.
  12. 李蕙汀, 「『默齋日記』를 통해서 본 16세기 婢夫·奴妻의 삶」, 『한국사연구』 147, 한국사연구회, 2009.
  13. 김용철, 「『목재일기』 속의 女婢」,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14. 송재용, 「『默齋日記』와 『眉巖日記』를 통해 본 16세기의 冠婚喪祭禮」,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15. 민정희, 「16세기 野祭의 실태와 그 의미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6, 한국역사민속학회, 2011.
  16. 류숙영, 「16세기 星州 지역 妓生과 樂工의 존재 양상-『墨齋日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60, 한국문학회, 2012.
  17. 민정희, 「16세기 이문건 가와 무녀 추월의 단골관계」, 『역사연구』 24, 역사학연구소, 2013.
  18. 김성수, 「『목재일기』가 말하는 조선인의 질병과 치료」, 『역사연구』 24, 역사학연구소, 2013.
  19. 정시열, 「默齋 李文樞의 『養兒錄』에 나타난 祖孫 葛藤에 대한 一考」, 『동양고전연구』 50, 동양고전학회, 2013.
  20. 류숙영, 「16세기 士大夫 계층의 彈琴 趣味와 거문고」, 『민족문화』 43, 한국고전번역원, 2014.
  21. 박정미, 「조선 명종대 星州 安峯寺의 儒佛儀禮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3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4.
  22. 이석주, 「『養兒錄』과 默齋의 노년관」, 『한국사상과 문화』 77,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23. 이혜정, 「16세기 사치풍조와 사회적 구별짓기 : 『默齋日記』에 나타난 通過儀禮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7,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24. 조은숙, 「『목재일기』에 나타난 자녀교육과 갈등의 형상」, 『문학치

- 료연구』 3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25. 조은숙, 「이문건 시묘살이를 통해 본 조선중기 儒者의 喪禮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3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26. 문혜경·양진건, 「유배육아일기 『養兒錄』에 나타난 隔代教育의 의미」, 『인문연구』 81,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27. 이상주, 「16세기 星州地域에서의 李文樅과 藝人들의 繪畫創作文化콘텐츠 樣相」, 『한국한문학회연구』 68, 한국한문학회, 2017.
28. 조수미, 「『默齋日記』의 서두 형식의 특징과 그 의미」, 『인문연구』 8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29. 조희연, 「『養兒錄』에 나타난 默齋의 육아관과 유아교육적 의미」, 『인격교육』 13, 한국인격교육학회, 2019.
30. 송철호, 「『養兒錄』에 나타난 조선조 사대부의 어린이 교육관」, 『방정환연구』 2, 방정환연구소, 2019.
31. 이성임, 「16세기 安峰寺의 寺刹雜役考 -李文樅의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영남학』 7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0.
32. 박양리, 「『목재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사대부 여성의 초상」, 『한국민족문화』 7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33. 최기숙, 「『목재일기』, 16세기 양반의 감정 기록에 대한 문학/문화적 성찰」, 『국어국문학』 193, 국어국문학회, 2020.
34. 김윤희, 「『목재일기』 모친상으로 본 『가례』 食住 규제의 실천과 변통」, 『한국민속학』 73, 한국민속학회, 2021.
35. 주영애·백주원·배보람, 「목재 이문건의 『養兒錄』을 기반으로 한 ‘손자녀 양육을 위한 조부모 교육’프로그램」,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1.
36. 박양리, 「음식을 통해 본 16세기 사대부의 일상 :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8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2.
37. 박재홍, 「16世紀 조선시대 治病을 위한 巫俗 활용 양상 - 李文樅의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 『한문고전연구』 46, 한국한문고전

학회, 2023.

38. 최기숙, 「매 맞는 노비와 윤리/교양의 역설 - 『목재일기』의 문학 해석학적 연구」, 『동방학지』 20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3.
39. 이성임, 「16세기 양반 남아(男兒)의 성장 과정과 교육 - 이문건의 『默齋日記』와 『養兒錄』을 중심으로 -」, 『고문서연구』 63, 한국고문서학회, 2023.
40. 윤효정, 「일기자료를 통해 본 16세기 사대부층의 磁器 구득과 사용 -『목재일기』, 『미암일기』, 『쇄미록』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연구』 4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4.

### III. 단행본

- 이복규, 『默齋日記에 나타난 出産·生育 관련 民俗』, 온지학회, 1997.
- 이상주, 『목재 이문건의 문학과 예술세계』, 다운샘, 2013.
- 김인규, 『역주 목재일기』(총 4책), 민속원, 2018.

